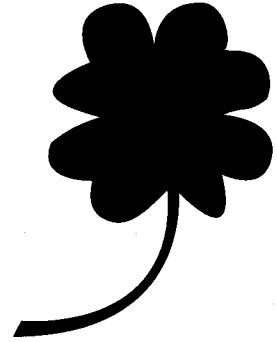


이동식 / KBS-ITV 편집주간

# 행운의 크기



**요**즈음같이 사방이 푸르게 변한 때에는 완전히 더워지기 전인 아침시간에 산책을 하라고 권하고 싶다. 덥지 않아서 좋고, 건강에도 아주 좋다. 다행히 나는 집에서 몇 분만 나가면 곧바로 발이 있고 산이 있어서 산책을 자주하는 편이다.

그런데 지난 주 산책길에 허리도 펴고 잠시 길 옆에 잠시 주저앉았다가 한 클로버 덩굴에 눈이 머물렀다. 혹시나 해서 눈길을 주었는데 거기에 있었다. 네 개의 잎이 달린 클로버였다. 같이 갔던 집사람도 찾았다며 즐거워한다. 다시 보니 그 옆에 또 있었다. 그 옆에도 또. 이런 추세라면 더 찾을 수 있겠지만 나는 거기서 그만하자고 제의했다. 우리 식구가 4명인데 하나씩만 있으면 될 걸 더 찾아서 무엇하랴 하는 생각에서였다.

요즈음에는 로또 열풍이 광풍으로 바뀌어 이 나라를 매섭게 몰아치고 있다. 최근에는 1등이 2명으로 250억 원인가 하는 큰 돈을 받게 됐다고 한다. 얼마나 큰 돈인지 짐작도 가지 않지만 그런 큰 상금도 일생에서 보면 큰 행운이 아닐 수 없는데, 그 행운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닐 수 있다는 우려가 늘 뒤따라 다닌다. 지난 번 400억 원인가를 탄 한 경찰은 나름대로 십일조에 해당하는 30몇 억을 동료와 후배들을 위해 내놓고 잠적할 수 밖에 없었는데, 이처럼 큰 돈이 갑자기 생기면 지금까지 살고 있던 밝은 세상을 뒤로하고 어두운 세상으로 들어갈 수 밖에 없다. 그 점이 이 로또 행운의 가장 큰 그림자이다.

## 행운이란 무엇인가?

정말로 가장 좋은 행운은 그것을 행운으로 여길 정도로 조그맣고 알찬 것이어야 한다고 본다. 너무 큰 행운은 인생의 큰 짐이자 시험이며 때로는 횡액이 될 수도 있다.

그런 의미에서 예전 주택복권처럼 상금의 규모가 몇 억 차원에서 머물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? 한꺼번에 몇 백억 원씩 타가는 로또복권은 그 자신으로 보나 사회적으로 보나 큰 손실일 수밖에 없다.

영국에서도 로또를 실시하지만 일등의 상금이 10~20억 정도에 머물고 있는데, 그것은 그만큼 로또를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뜻이다. 우리 나라는 한 번만 복권이 이월되면 수백억으로 뛰는데 그것은 전국에서 그만큼 복권에 대한 광풍이 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.

우리 나라는 로또판매에서 생긴 돈을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고, 각 부처가 찢어서 가지만 영국에서는 복권판매 수익의 일정액을 공익자금으로 내놓으면 그 돈을 미술관과 박물관을 운영하고 공익시설을 세운다. 그래서 영국에 세계에 자랑하는 영국박물관(흔히 대영박물관으로 부른다)같은데도 입장료를 받지 않는다.

네 잎 클로버를 찾아서 연인에게 전달하는, 정말 조그만 행운을 찾고도 기뻐하며 살아왔던 우리들에게 로또는 너무 크고 지나친 행운이기에 그것은 행운이 아니라 일종의 횡액이자 재앙으로 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다시 생긴다. 한동안 아파트 투기가 유행했는데, 자기가 살지도 않을 집을 신청해서 당첨되면 당장 몇 천만원을 챙길 수 있는 것도 일종의 행운일 수는 있지만 그 행운도 개인에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. 공돈이 몇 천만원, 몇 억이 생기면 그만큼 쓸데없는 쓸 곳이 생기고 생활의 기본자세가 깨어지고, 정상적인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다.

벌써 몇 주가 지났는데, 매 주마다 생기는 수 백억 짜리 수 십억 짜리 커다란 행운의 주인공들이 모두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궁금해진다. 그들 모두 감당할 수 없는 행운 때문에 자신이 자신의 생을 즐기지 못하고 지금 갖고있는 재산이나 행운을 뺏길 것을 걱정하며 음지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... **PPPK**